KIA 우완 이도현·성영탁 “1군 무대 기다려집니다”

‘멘탈 갑’ 이도현, 성실함에 운동능력 탁월…다양한 변화구 시도
‘퓨처스리그상’ 성영탁 “구속만 빼면 완벽…내년엔 TV 나올 것”

‘호랑이 군단’에 세 번째 도현과 영탁이도 있어요!

KIA 타이거즈는 지난 11월 신예 선수들 위주로 마무리캠프를 진행했다. KIA의 강점이자 미래로 꼽히는 ‘젊은 마운드’는 정재훈 투수 코치와 이동걸 불펜 코치 등 1군 코치진 앞에서 어필 무대를 가졌다.

우완 이도현과 성영탁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린 시간이 됐다.

2023신인 이도현은 휘문고 재학 시절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입단과 함께 재활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후반기 다시 공을 든 이도현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 8경기에 나와 9.1이닝을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프로 도전을 시작했다.

입단 때부터 이도현의 성실함과 운동능력은 소문이 자자했다.

선배들이 인정한 운동능력을 갖춘 이도현은 “운동 능력은 좋은 것 같다. 그게 야구에서 기술적인 것으로 나오면 될 것 같다”며 “처음 캠프에 참가했는데 1군 코치님들 하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재미있고,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멘탈’을 최고 강점으로 꼽은 이도현은 변화구로 경쟁력을 키워 1군에 데뷔하겠다는 각오다.

이도현은 “멘탈이 강점이다. 또 직구 무브먼트가 있는 편이라서 타자들 상대할 때 편하다. 올해 스피드는 147㎞까지 기록했다”며 “변화구는 커브를 많이 던지고,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사용한다. 캠프에서는 내 구질에 맞는 변화구를 배웠다. 커터를 배웠고, 직구도 포심으로 던졌는데 투심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KIA는 ‘도현’이 화제의 이름이 됐었다.

마운드에서는 예비역 김도현이 등장해 깜짝 활약을 해줬다. 타석에서는 윤도현이 시즌 막판 뜨거운 방망이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막내’ 도현이 내년 시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도현은 “또 다른 세 번째 도현이가 있다. 내년에 1군에서 얼굴 많이 비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5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부산고 출신의 2024신인 성영탁도 두 번째 시즌에는 “TV에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를 통해 야구팬들에게 먼저 이름을 알린 성영탁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23경기에 나와 40이닝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무대를 경험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주최한 리얼글러브 시상식에서 투수 김현수, 유지성과 KIA 퓨처스리그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대에 오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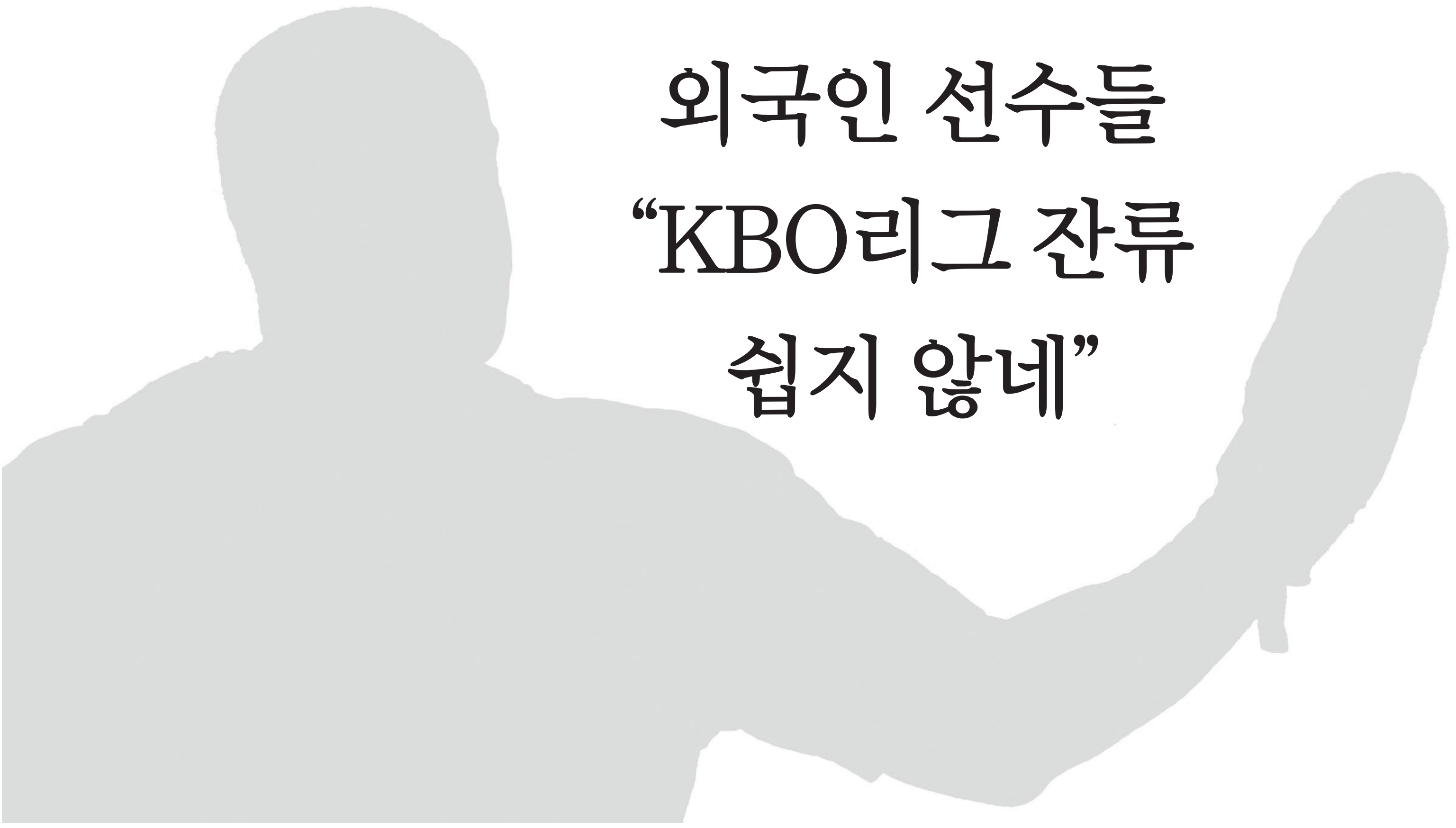
성영탁은 “캠프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 서로 피칭 보면서 감탄도 하고, 영상도 돌려보면서 많이 배웠다”며 “구속이 문제라서 얼마나 더 빠르게 힘을 쓰느냐에 신경 썼다.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성영탁은 ‘개인 과제’ 시간에도 스피드에 집중해 훈련을 했었다.

성영탁은 “제구와 변화구는 자신 있다. 변화구는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를 던진다. 직구 대신 투심을 던졌는데, 타자 상대하기가 쉬워진 것 같다”며 “구속만 빼면 완벽하다. 내년에 꼭 TV에 나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우완 이도현(왼쪽)과 성영탁이 2025시즌 ‘젊은 마운드’ 새로운 전력을 꿈꾸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 “KBO리그 잔류 쉽지 않네”

원 소속팀과 재계약 성공 13명 불과…3명 전원 재계약 팀도 없어
KIA, 투수 네일만 재계약…투수 올러 이어 위즈덤과 사인 앞둬

2025시즌 KBO리그 외국인 선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변화’다.

2024시즌 KBO리그에서 뛴 선수 가운데 원 소속팀과 재계약에 성공한 건 13명에 불과해 절반을 넘지 못했고, 외국인 선수 3명 전원과 재계약한 팀도 없다.

16일 현재 KBO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치지 못한 팀은 KIA와 NC 둘뿐이다.

올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는 부동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총액 180만달러에 계약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새로운 선수로 채운다.

이미 오른손 강속구 투수 애덤 올러와 100만달러에 계약한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넘긴 거포 1루수 패트릭 위즈덤과 사인을 눈앞에 뒀다.

NC는 올 시즌 KBO리그 홈런왕 맷 데이비슨과 150만달러에 재계약했고, 최고 시속 159㎞를 던지는 우완 라일리 톰슨을 새롭게 영입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올해 KBO리그 투수 골든글러브를 받은 에이스 카일 하트와 재계약하는 게 최선이지만, 하트가 빅리그 복귀를 추진 중이라 ‘플랜B’를 가동 중이다.

나머지 8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2025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올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던 삼성은 투수 데니 레예스와 120만달러, 내야수 르윈 디아즈와 80만달러에 재계약했다.

또한 2023년과 올해 키움에서 뛴 우완 아리엘 후라도를 영입해 그나마 익숙한 얼굴들로 자리를 채웠다.

KT 역시 우완 윌리엄 쿠에바스와 150만달러, 외야수 멜 로하스 주니어와 180만달러에 재계약한 뒤 키움이 재계약을 포기한 좌완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를 영입했다.

LG는 가을야구에서 투혼을 펼친 우완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130만달러), 내야수 오스틴 딘(170만달러)과 재계약하고 우완 요니 치리노스(100만달러)를 새롭게 영입했다.

SSG는 우완 드루 앤더슨에 120만달러, 외야수 기예르모 에레디아에 180만달러를 주고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한국계 투수 우완 미치 화이트를 새롭게 영입했다.

롯데도 좌완 찰리 반즈(150만달러)와 외야수 빅터 레이예스(125만달러)와 계약하고, 나머지 한자리만 새로운 얼굴인 좌완 터커 데이비슨(95만달러)으로 채웠다.

2025시즌을 새 구장에서 맞이하는 한화는 올 시즌 대체 선수로 KBO리그에 왔던 우완 라이언 와이스(95만달러)와 내년에도 함께 한다. 와이스와 짝을 이룰 투수로 코디 폰세(100만달러)를 신규 영입했고, 타자는 외야수 에스테반 플로리얼(85만달러)로 채웠다.

두산과 키움은 올해 뛴 외국인 선수 전원과 결별한 구단이다.

두산은 좌완 콜 어빈, 우완 토머스 해치, 외야수 제이크 케이브 새 외국인 선수 3명에게 모두 100만달러씩 안겨줬다.

키움은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타자 2명, 투수 1명’을 쓰는 팀이다.

후라도, 헤이수스 등 검증된 ‘10승 투수’를 내보낸 키움은 좌완 케니 로젠버그(80만달러)에게 한자리를 맡긴다.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100만달러)가 3년 만에 KBO리그에 복귀하고, 올해 삼성에서 뛴 루벤 카디네스(60만달러)도 붙잡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PNC 챔피언십에서 아들 찰리(왼쪽)와 동반 출전한 타이거 우즈(맨 오른쪽)와 캐디로 깜짝 등장했던 딸 샘. /연합뉴스

우즈 부자 출전 PNC 챔피언십 22일 개막

PGA 투어 이벤트 대회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는 22일(한국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칼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의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총상금 108만5000달러)에는 타이거 우즈와 찰리 부자(父子)가 출전한다.

이 대회는 메이저대회 우승 경력자가 부모, 자녀 등 가족 한명과 팀을 이뤄 36홀 스트로크 합산으로 순위를 가린다.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벤트 대회였지만 2020년부터 우즈 부자가 줄곧 출전하면서 메이저대회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대회도 우즈가 5년 연속 출전을 확정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우즈는 지난 7월 디오픈을 마친 뒤 5개월 동안 필드에 나서지 않았다. 재활과 훈련이 그만큼 더디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우즈는 지난 9일 끝난 히어로 월드 챌린지가 자신이 호스트인데도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수술 받은 허리 상태가 아직 온전하지 않고 경기력이 수준급 선수들과 겨룰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그는 아들 찰리의 성장을 지켜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PNC 챔피언십 출전은 포기하지 않았다.

PNC 챔피언십은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 통증이 남아있고 다리에 힘이 충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관전 포인트는 우즈의 스윙이다.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다투고 싶다는 우즈의 희망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기회다.

또 우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들 찰리의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무대다.

2009년 2월생인 찰리는 곧 16살이 된다. 5년 전 처음 출전했을 때보다 키도 컸고 몸집도 불어났다.

그동안 크고 작은 주니어 대회에 꾸준히 출전해 우승 소식도 간간이 전한 찰리가 작년보다 얼마나 힘차고 정확한 샷을 구사하는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우즈 부자는 2021년에 준우승했고 작년에는 5위를 차지했다.

작년 대회 때 캐디로 깜짝 등장했던 우즈의 딸 샘이 올해도 어떤 모습으로든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2011년생 아들 윌 맥기와 함께 출전한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테니스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챔피언에 올랐던 아버지 페트르와 함께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우승을 합작한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와 아들 제이슨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존 댈리, 데이비드 듀발, 맷 쿠처, 파드리그 해링턴, 비제이 싱, 닉 팔도 등은 아들을 데리고 출전하고 프레드 커플스는 사위, 스티브 스트리커는 딸, 게리 플레이어는 외손자를 대동한다. /연합뉴스